

온라인 쇼핑에 밀려...광주 전통시장 빈 점포 급증

양동시장 점포 1074개→979개 1년만에 10% 가까이 줄어 남광주시장 점포 공실률 지난해 7%에서 12.8%까지 뛰어 백화점 경영도 악화일로...소매판매액지수 6분기 연속 감소

온라인 쇼핑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전통시장은 물론 백화점까지 소비자 발길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소비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온라인 쇼핑 비중을 높이며, 오프라인 매장은 편의성과 접근성 거가다 품목에 따라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려 그야말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전통시장 점포수는 10% 가까이 줄었고, 과거만 하더라도 입점이 쉽지 않았던 백화점조차도 빈 점포가 나오기 시작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 8027억원으로 전년(17조 9138억원) 대비 1조 8889억원(10.5%)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고, 한 달 만에 1조원이 늘어난 21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주요 판매 상품인 농축수산물물의 경우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액이 전년보다 2058억원(26.2%) 증가하는 등 지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통시장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당장 호남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양동전통시장의 공실이 급증하고 있다.

이날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양동전통시장 내 점포 수는 지난 2021년 1090개→2022년 1080개→2023년 1074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 979개로 전년 대비 8.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전통시장은 크게 7개로 구분되는데, 가장 규모가 큰 양동시장과 북계상가의 경우 각각 10개가량 감소했지만, 닭전길과 수산시장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닭전길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도 점포 수가 147개(영업 140개·공실7개)였지만, 올 들어 106개로 줄었다.

전체 점포 수 규모가 감소하면서, 공실률은 4%에서 8%까지 치솟았다.

김장호 양동시장 닭전길 상인회장은 "전통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시장 내에서도 변동리에 위치한 닭전길은 고정손님 외에는 찾는 소비자가



13일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의 한 점포가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실 상태로 남아있다.

없게 된 것 같다"며 "과거엔 전통시장 점포는 재산 권처럼 잘 처분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옛말이 됐다"고 말했다.

양동 수산시장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공실률 30%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공실률이

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률을 작성할 때 135개였던 점포 수를 94개로 축소하면서 나온 수치로, '는 가리고 아웅' 식 통계인 셈이다.

대표적인 수산물 전문 전통시장인 남광주시장 역시 공점포 수가 지난 2022년 16개에서 지난해

30개로 약 2배가량 뛰었고, 시장 내 점포 공실률 역시 7%에서 12.8%까지 뛰었다.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실률은 1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오프라인 시장 약세는 백화점까지 번졌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광주지역 백화점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6.9%p를 기록했다. 백화점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올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감소(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를 반영하듯, 광주 시내 A백화점은 유명 신발 브랜드가 영업 악화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매장을 비웠는데, 마땅한 입주 브랜드가 없어 1년 가까이 다양한 브랜드의 할인 상품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백화점의 경우 비어있는 점포를 보기 어렵지만, 입점 브랜드들의 계약 기간 및 리모델링 기간, 계절 시즌 준비기간 사이 발생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빈 점포가 채워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다"며 "못해도 6개월 이내에는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되는데, 이처럼 백화점 공점포가 장기화 방지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폐현수막으로 만든 '환경생각 안전우산' 지난 12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상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환경생각 안전우산'(환생우산)을 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전국 최초로 광주 서구청과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환생우산' 전달식을 진행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청년 10명 중 8명 "비혼 동거 괜찮아"

48.7% "꼭 결혼해야한다" 일 우선시하는 인식은 급감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 청년은 10년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에 대해 긍정이거나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증가했고, 일을 우선시하는 인식은 급감했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사회지표 본 청년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광주 청년 중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이는 48.7%로 10년 전인 2012년(52.8%)보다 4.1%p 감소했다.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청년은 10년 전 56.0%에서 82.1%로 26.1%p 늘었고,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응답 역시 32.1%에서 38.9%로 6.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난 2022년 기준 35.7%로 10년 전(60.9%)에 견줘 25.2%p 감소했다.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이들도 10년 전

(63.0%)보다 14.1%p 늘어난 77.1%였고,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응답은 0.8%p 증가한 35.0%였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겠다는 청년이 광주는 23.1%였고, 전남은 34.1%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청년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일'보다는 가정 혹은 개인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광주 청년들 중 '일이 우선이다'라고 답한 이는 61.9%로 과반수를 넘었지만, 지난해 32.3%로 급감했다.

반면, '일과 가정의 균형생활'을 중시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46.8%로 10년 전(29.5%)보다 17.3%p 증가했다.

전남 역시 '일이 우선이다'고 답한 비중이 지난 2013년 47.9%에서 지난해 25.8%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 비중은 32.7%에서 55.6%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내 3만6000여명(1만8000가구)의 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증기청 대호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13일 '2024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대호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정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지원사업'은 500만불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해 해외 마케팅 지원과 R&D 및 금융지원 우대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빛그린 산단에 자리한 ㈜대호산업은 트럭 및 버스용 재생타이어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트럭·버스용 재생타이어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작년 수출은 약 1200만불에 달하는 기업으로, 재생타이어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13일 '2024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대호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정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지원사업'은 500만불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해 해외 마케팅 지원과 R&D 및 금융지원 우대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빛그린 산단에 자리한 ㈜대호산업은 트럭 및 버스용 재생타이어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트럭·버스용 재생타이어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작년 수출은 약 1200만불에 달하는 기업으로, 재생타이어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취약계층 삼계탕·선풍기 나눔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와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1일 광산군청을 찾아 고령 농업인과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삼계탕·선풍기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행사는 취약·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병규 광산구청장, 한재규 본부장, 박내준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이옥근 투계터광산 나눔문화재단 사무처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의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삼계탕 250세트와 선풍기 125대를 전달했으며, 관내 농업인 및 취약·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재규 본부장은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에 따른 운영질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54.89(+26.72)
↑ 코스닥	871.33(+0.66)
↓ 금리(국고채 3년)	3.277(-0.030)
↓ 환율(USD)	1373.90(-2.30)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 또 동결...연내 1회 금리인하 예고

연말까지 고금리 기조 유지 무게 9월 인하설 약화 연말 인하 가능성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됐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기준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되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온 연준은 같은 해 9월 이후 이번까지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로 한국(연 3.50%)과의 금리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가 유지됐다.

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균정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튼튼하다"면서 "물가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지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 2%라는 위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완만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또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의 결과에 따른 금리 인하 횟수를 놓고 연내 1회 혹은 2회 사이의 엇갈린 예측치를 제시해 왔다.

FOMC는 지난 3월 회의 직후에는 연말 금리를 4.6%로 전망, 모두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바 있다. 또 19명의 참석자 가운데 7명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4명은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8명은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 문제에 있어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지나치게 고무대선 안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연합뉴스